

군산, 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 뉴딜 사업 선정

수산물 시장 밀집된 해신동 재탄생 기대

군산시는 국토교통부에서 공모한 2019년 하반기 도시재생 뉴딜 사업으로 중심시가지형 사업이 최종 선정됐다.

이와 관련 지난 8일 정부는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토교통부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열고 '19년도 하반기 도시재생뉴딜사업 76개 지역을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지로 선정한 바 있다.

이번에 선정된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현재 수산물센터 이전사업과 맞물

려 사업을 추진하게 됨으로서 수산물 시장이 밀집되어있는 해신동에 활력을 불어넣어 새로운 모습으로 재탄생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해신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국비 150억원, 도비 25억원, 시비 75억원, 부채연계 455억원, 자체사업 30억원, 민간투자 3억원, 기금 15억원 등 총 사업비 753억원이 오는 2024년까지 투자되는 사업이다.

이번에 선정된 중심시가지형은 수산물종합센터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폐철도를 활용한 근대식열차를 도입해 근대역사박물관 등 원도심에 방문한 관광객을 수산물시장까지 유입시켜 도시재생사업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또한 시설노후로 외면 받고 있는 수산물센터를 해양수산복합공간으로 새롭게 준비하고 있고 인근 주차장 부지에 건설될 혁신성장센터와 입체보행도로 연결해 관광객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며 현 CJ 부지에는 문화파크를 조성해 문화관광 콘텐츠를 강화해 청년층을 유입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이번에 선정된 해신동 뉴딜사업과 월명동 도시재생 시범사업, 중앙동 뉴딜사업의 지역별 대표적 특색인 수산물, 근대역사문화, 전통시장을 군산시 산업유산인 폐철도를 활용한 도시재생 네트워크를 구축해 도시재생 사업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강 시장은 "군산시를 대표하던 제조업의 붕괴로 인해 침체된 지역경제를 도시재생사업을 바탕으로 한 다양한 형태의 풀뿌리 기업을 육성해 자립경제로 전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군산=김정훈 기자

군산시, 제5회 건축문화상 작품 공모

11월 11일부터 15일까지

군산시가 제5회 군산시 건축문화상 작품을 공모하며 시민들의 호응을 기다리고 있다.

시에 따르면 아름답고 품격 있는 도시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건축 문화적 가치가 우수하고 쾌적한 도시경관 증진에 기여한 건축물을 대상으로 2019년 제5회 군산시 건축문화상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건축문화상 공모는 건축문화 향상에 기여한 관내의 우수한 건축물을 발굴해 시상함으로써 다양한 건축양식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지난 2011년부터 격년제로 시행해 오고 있다.

올해 5회째를 맞는 건축문화상 공모대상은 지난 2016년 10월 1일부터 2019년 9월 30일까지 사용

승인된 군산시 소재 건축물로 오는 11월 11일부터 15일(5일간)까지 소정의 신청서와 함께 전경사진 및 설계도면, 현황판(패널)을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작품은 11월중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금상, 은상, 동상 각 1점씩 총 3점을 선정하며, 수상작에 대해서는 시상(설계자)과 상패수여(시공자) 및 수상내용을 새긴 동판을 건물 전면에 부착할 계획이다.

또한 수상작을 포함한 출품작은 12월중 시청사 2층 '시민갤러리'에 전시할 예정이며 자세한 공모 내용에 대해서는 군산시청 홈페이지 및 건축경관과(063-454-4312)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군산=김정훈 기자

“국립 익산박물관 개관일 맞춰 프로그램 마련”

정현을 시장 간부회의서 지시

정현을 익산시장이 14일 열린 간부회의에서 익산시는 도시 전체가 박물관임을 강조하며, 국립 익산박물관 개관일에 맞춰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정현을 시장은 "2천 년전 익산에 도움을 정한 마한을 시작으로 백제 왕도문화, 근대문화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유적들이 남아있어, 대한민국의 역사를 보려면 익산으로 와야한다는 말이 과언이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정 시장은 "뿐만 아니라 실제 우리 익산에는 10개 정도의 박물관이 있는데, 여산에 있는 국립 전사박물관

과 오는 1월 개관할 국립 익산박물관까지 국립 박물관도 2개나 된다."고 설명하며, "국립 익산박물관이 개관하면 흠어져 있는 익산의 국보급 유물들이 한곳에 전시되는 만큼 전시내용 또한 풍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 시장은 "오는 1월 10일 익산박물관 개관식이 열리는데, 단순히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이번 개관식을 기해 시민들이 참여하고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또, 이날 회의에서 정현을 시장은 "지난 주에 신규시책 및 신규 국가 예산 발굴보고회를 가졌는데, 대규모 사업이 많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현 정부가 재정적으로 팽창 정책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우리도 공모 사업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제안 사업을 발굴하여 대규모 신규사업 추진에 치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탄생, 성장, 결혼, 기념의 숲을 조성하여 특별한 날을 기념하고자 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내 나무 심기운동을 펼칠 예정."이라며, "의미 있는 행사인 만큼 시민운동으로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사)푸른익산가꾸기 운동본부 주관으로 추진되는 내 나무 심기운동은 수목 1주(1구좌) 당 20만원이며, 구입한 수목이나 현수 수목은 현재 조성중인 인화공원 대규모 도시 숲에 시민이 직접 식재할 수 있다.

/익산=장영원 기자

군산시, 지역 경제발전 도모 신재생에너지지역 지원 선정

자립도시 군산시가 신재생에너지 지역 지원 국비 공모사업에 선정되며 지역 경제발전을 도모한다.

지난 14일 시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주관하는 2020년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 국비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돼 국비 3억원을 지원받았다고 밝혔다.

신재생에너지 지역 지원 사업은 지역특성에 맞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을 통해 지자체 에너지 공급체계를 강화하고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다.

시 소유 공공청사(군산시청 외 10개소)의 전력 사용량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현장실사를 통해 대상지를 선별했으며, 국비 공모사업에 총 사업비 6억5천만원을 지원해 최종 선정됐다.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공공청사 11개소에 총 275Kw 태양광 발전설비를 운영해 연간 사용하는 전기 사용량의 평균 10.2%를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해 사용할 수 있다.

신재생에너지로 연간 351MWh의 전력을 생산해 3천5백만원의 전기요금 절감과 함께 이산화탄소 156t을 저감하는 환경개선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군산시는 시민과 함께하는 에너지자립도시 조성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 국비 공모사업에 선정돼 46억원을 확보했으며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등 각종 시민 지원사업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에너지자립 도시 조성을 위해 주요 공공시설에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하여 에너지 공급체계를 친환경으로 개선하고 운영비를 효율적으로 절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군산=김정훈 기자



익산시립도서관은 지난 12일 모현도서관 및 모현공원 일원에서 2019 익산 북 페스티벌을 개최했다.

익산 북 페스티벌 성황리 마쳐

4780여 명 시민들 참여

익산시립도서관은 지난 12일 모현도서관 및 모현공원 일원에서 2019 익산 북 페스티벌을 개최했다.

이번 북 페스티벌은 익산시립도서관이 주관하고 익산시작은도서관협의회, 익산 민예총, (사)한국작은도서관 협회의 협력으로 각종 전시와 공연, 체험마당 등이 다채롭게 진행됐으며 4,780여 명의 시민들이 참여했다.

이날 오전에 진행된 개막식은 식전 공연인 매직&버블쇼를 시작으로 책 읽는 가족, 독후감공모전, 작은도서관 활성화 유공자 시상식, 여태명 붓글씨 퍼포먼스 등이 펼쳐졌다.

또한 독서골든벨에서는 초등 3~6학년 80여 명이 참석해 열띤 경쟁을 펼친 끝에 양인경(모현초 5학년) 학생

이 시상상, 이가영(부천초 4학년) 학생이 시의회장상, 조윤아(모현초 4학년) 학생이 교육장상, 조예은(이리서초 4학년) 학생 및 김지아(황등초 5학년) 학생이 작은도서관협의회장상을 각각 수상했다.

특히 이날 모현공원 일원에서는 도심 속 힐링 공간인 북 캠핑을 마련해 인기를 끌었으며, 그 밖에 책과 함께 여러 가지 놀이문화를 체험해 볼 수 있는 독서문화체험마당과 보이는 BOOK라디오, 동화 작가와의 만남을 진행했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독서의 계절을 맞아 준비한 익산 북 페스티벌에 참여해주신 많은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며 "오늘을 계기로 익산시민 모두가 성장할 수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익산=장영원 기자

군산시, 군산경찰서와 안심도시 구축 업무협약

군산시는 군산경찰서와 14일 여성들이 안전한 안심도시 구축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범죄와 위험에 노출돼 도움이 필요한 여성을 위한 공동 대응 체계를 마련해 인적 안전망을 구성하고 범죄예방에

대한 지원을 실시하는 등 여성안심도시 구축을 위한 협력시스템을 제공한다.

군산시는 여성 안심도시 구축을 위한 업무를 총괄 운영하고 경찰서는 현장대응 체계와 탄력순찰 등을 지원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

를 제공할 예정이다.

여성안심지킴이집을 연계한 안심귀가서비스를 지원하고 범죄예방 및 관성제고를 위해 여성안심구역과 안심귀갓길에 알람표시 설치 등 예방시설물을 구축할 계획이다.

군산시 관계자는 "이번 협약이 여성이 안전한 안심도시 군산을 만들기 위한 마중물의 역할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군산=김정훈 기자

익산시,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개최

익산시는 최근 시청 상황실에서 교육지원청, 영양교사, 급식단체, 학부모 및 농가대표 등 11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 익산시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심의회에서는 2020년도 학교급식지원을 위한 무상급식, 친환경농산물 지원금액 등을 심의했으며, 소규모 학교의 식재료 사용에 대한 어려움을 반영하여 학생 수 100인 이

하 학교에 친환경농산물 구입비를 추가 지원하기로 협의했다.

또한 익산시 어린이에게 안전한 먹거리 공급을 위하여 Non-GMO 식재료 공급 확대에 대한 의견을 나누며 내년 하반기부터 Non-GMO 식용유 공급이 지원될 수 있도록 협의했다.

/익산=장인천 기자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